

'게임의 룰'을 지키며 사는 지역

지방 출판유통 현장을 간다 ② — 전남·광주지역

전국 출판유통 규모 8% 정도를 점유한 전남·광주지역 서점가에 부는 바람은 평온한 듯하다. 지난해 할인판매의 광풍이 전국을 휩쓸 때도 잠잠했다. 그러나 속내는 편치 못하다. 지난해 7곳의 도매상과 60여곳의 서점이 부도를 내거나 문을 닫았다. 원인은 지역경제의 위축과 서울 도매상 및 출판사의 횡포, 그리고 생계형 도매상의 난립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광주지역(여수·순천·광양 등의 상권 별도) 도매상 8곳 가운데 일지서적(대표 문정필)을 제외한 모든 곳이 부도를 냈다. 현재 영업을 하는 도매상은 일지서적, 삼일서적(대표 조영재), 사랑방문고(대표 박시중) 등. 같은 상권에 있는 320여 서점 가운데 60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 정서가 약도 되고 독도 되고

지역 도매상 및 서점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근본적 원인은 우선 지역경제의 위축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경제의 기반은 농업이다. 농촌경제가 활성화돼야 다른 상권이 동반 상승하는 셈이다. 문정필 대표는 “농번기가 되면 매출이 떨어지는 데 농촌경제가 바닥을 드러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지역 경제는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 '게임의 룰'을 지킨 것은 기적같은 일이다. 충장서림 조용석 상무는 이유를 지역 특유의 정서에서 찾았다. “누구는 할인판매를 모르겠습니까. 먼저 책을 꺼지 않으려는 암묵적 합의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적 정서 때문에 오히려 내적 쓰라림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서점은 도매상에서 밀어내는 책을 무분별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도매상은 과다반품으로 고통을 겪게 됐다. 생계형

도매상의 난립과 정리(情理)에 얽매인 영업방식의 악순환이 결국 부도라는 골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즉, 지역 특유의 정서가 약도 되고 독도 되는 현상을 빚은 것이다.

서울 도매상 출판사 횡포 심해

지역 유통업체를 힘들게 만든 다른 이유는 서울 도매상의 진출에 있다. 94년 영업을 시작한 보문당은 소매와 도매점의 마진율 차이를 5%대에도 미치지 못하게 무차별적인 밀어내기를 했다. 결과는 생계형 지역 도매상의 목줄을 쥐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눈에 띄게 늘어난 도도매상(일명 나카마)은 서점 곳곳을 휩쓸고 다니며 용단 폭격식 영업을 했다. 조용재 대표는 “지난해까지 서울 도매상과 도도매상이 곳곳을 휘젓고 다녀 경쟁력 없는 지역 도매상은 고사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여점과 할인매장의 등장도 지역 도매상을 힘들게 만든 원인으로 꼽았다.

몇몇 대형 출판사의 횡포도 한몫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출판사의 밀어내기식 영업은 결국 출혈경쟁을 불러왔고, 지역 도매상의 평균 수급율은 20%대를 밑돌지만 출판사의 수급율은 40%를 넘어 적자를 누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 서점 대표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받은 책까지 과도한 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난감한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지역 도매상의 위상이 혼

들리면서 대형 출판사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 대형서점의 지역 진출에 대한 우려도 긴장감을 감돌게 하고 있다. 박시중 대표는 “서울 대형서점의 지방진출은 지역 도매상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을 방법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대형서점과 경쟁하기 위한 길은 우선 자본력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발적 준비만이 경쟁력을 키우는 길

지역 출판유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부활과 더불어 자발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도매상은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고 여러 업체가 통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서점은 정리에 의한 영업을 지양하고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50평 이상의 서점 20여곳이 문을 연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역 도매상과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범출판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박시중 대표는 “지역 출판유통의 난제를 푸는 것은 지역만의 몫은 아니다. 업계 대의에 충실한 지방 거점 유통구조 갖추는 것이 범출판계가 상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광주·오완진 기자



일제시대 설립돼 3대째 운영하고 있는 삼복서점(위)과, 광주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충장서림(아래)